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8.20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389.60원 (-22.20원)

KOSPI

6,471.17 (-398.66, -5.80%)

KOSDAQ

824.46(-9.74, -1.17%)

국고채 10년 금리

4.337(-0.045%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화장품 역사적 한해를 보내는 중 [박중대]

Global Asset Strategy

CrediVille 8.13 부동산 대책의 채권시장 영향 점검 [김상만]

신흥국 전략 인도, 녹록지 않은 유가·금리 여건 [김근아]

기업분석

대한해운[신규] Next Step을 기대하며 [안도현]

유비쿼스 사업확장을 하려면 지금이 최적의 시점입니다 [김홍식]

오이솔루션 실적 턴어라운드가 임박했습니다 [김홍식]

SK하이닉스 40조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공시 [김록호]

에이직랜드 2026년 흑자, 2027년 임계점, 2028년 레버리지 [권태우]

산업분석

유틸리티 공급 부족에도 REC 가격은 안정적 [유재선]

글로벌리서치

사원전기 2Q26 Re: 단기 실적보다 견조한 수주에 주목 [송예지]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온사이트 도입의 근거는 납기에서 수용성으로 확대 [김시현]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물산, 기아, 삼성SDI, LG, S-Oil, 농심, 로보티즈, 제닉

하나증권

2026년 8월 20일 | 산업분석_Industry In-depth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8월 19일

코스맥스(192820)

BUY | TP 305,000원 | CP 246,000원

실리콘투(257720)

BUY | TP 59,000원 | CP 45,300원

아모레퍼시픽(090430)

BUY | TP 170,000원 | CP 133,100원

코스메카코리아(241710)

BUY | TP 147,000원(신규) | CP 123,600원

펄텍코리아(251970)

BUY | TP 70,000원(신규) | CP 55,400원

달바글로벌(483650)

BUY | TP 260,000원(신규) | CP 218,000원

LG생활건강(051900)

BUY | TP 350,000원(신규) | CP 302,000원

동국제약(086450)

BUY | TP 24,000원(신규) | CP 18,000원

화장품

역사적 한해를 보내는 중

2분기 호실적, 3분기는 더 좋다

'역사상 최초' 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실적발표는 없었다. 코스맥스는 처음으로 분기 매출 5천억원을 넘었고, 실리콘투 역시 분기 매출 4천억원 돌파는 처음이다. 한국콜마는 국내 ODM 역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0억원 이상을 기록했고, 코스메카코리아는 최초로 분기 매출 2천억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에이피알은 2026년 가이던스로 3조원을 제시했다. 3분기는 더 좋을 것 같다. 제닉을 비롯 하이드로겔 마스크 생산 업체들은 QoQ 10%씩 수주 잔량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도 3분기 수주 잔량이 2분기보다 크다. 펄텍코리아는 캐파 부족으로 3분기로 이월된 물량이 상당하다.

상저하고 명확, 2026년 수출 증가율 YoY 33% 예상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하반기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상저하고의 흐름이 명확해졌다. 주요 ODM/용기 5개사 합산 매출은 YoY 39%, 상반기 대비로는 8% 증가할 전망이다. 코스맥스/한국콜마/펄텍코리아 모두 YoY 30%를 웃도는 성장률이다. 상반기 대비로는 가동률 상승이 돋보이는 펄텍코리아와 제닉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화장품 전체 수출 증가율로 이어진다. 지금 추세로 가면 2026년 화장품 수출 증가율은 YoY 33%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한해 수출 증가액(YoY +31억 달러)이 2016년 연간 수출액과 맞먹는다. 블랙프라이데이 수요에 따라, 중국 수출 증가에 따라 그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2025년 수출 증가율이 YoY 10%였고, 애초 2026년 예상치가 YoY 1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한 서프라이즈이다.

투자전략: ODM/용기/무역벤더>브랜드

2026년 8월 현재, 한국 화장품 산업은 역사상 최대 수출 모멘텀을 지나고 있다. 주식시장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이 아쉬울 뿐이다. Top Picks는 코스맥스와 실리콘투로 한다. 하반기는 ODM/용기/무역벤더 업체들이 브랜드 업체들보다 높은 주가 상승률이 기대된다. 그동안 높은 실적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12MF PER 10배 내외로 여유 있는 상황이다. EPS와 적정 PER이 같이 상승하면서 주가 상승 폭은 상당히 클 수 있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업체에 공급 판매하기 시작한 신제품들이 성공한다면 한국 화장품 ODM 역사의 기념비적인 한해가 될 수 있다. 하이드로겔 마스크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상위 업체 수혜가 집중되면서 제닉/코스맥스/코스메카코리아에게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이 되고 있다. 브랜드 업체 가운데서는 아모레퍼시픽을 가장 선호한다. 에이피알과 달바글로벌은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트랩에 빠질 수 있다. 구다이글로벌 상장을 앞두고 브랜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역량이 중요한 밸류에이션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모레퍼시픽의 재평가가 기대된다.



Analyst 박중대 forsword@hanafn.com
RA 양정석 jsyang@hanafn.com

2026년 8월 19일 | Global Asset Research

Credit

CrediVille

8.13 부동산 대책의 채권시장 영향 점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희소재’(稀少財)가 되어가고 있는 가계대출

이른바 8.13 부동산 대책(정식 명칭: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금융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금번 대책은 '22년 이후 이어진 주택 착공 감소와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6.27 대책 이후 유지해온 수요관리 기조 속에서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전해진다.

한편, 채권시장 또한 금번 대책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된다. 금번 대책이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출제한을 완화함에 따른 은행권 대출수요 및 채권조달증가 가능성, 둘째, 공공주거기반 확대를 위한 관련 공기업 채권조달증가 여부, 셋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르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의 재원조달(및 채권발행)증가 등이 그것이다.

먼저, 공공부문을 살펴보면 이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증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채권발행은 올해 들어 증가세가 빨라진 상황이다. LH의 금년 상반기 채권발행규모는 7.13조원으로 과거 5개년 평균치인 2.77조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LH의 경우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 등에 따라 기존 사업계획 대비 조달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여타 부동산 관련 공기업들(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직접대출은 아니지만 PF보증과 같은 우발채무성격의 부담이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관련 직접자금소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래 들어 채권발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공사의 경우 현행 지자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출자형식으로 변경해 채권발행 여력이 확대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실제 대출증가 등에 따른 은행권(5대은행)의 발행부담에 대해 생각해보자. '25년 말 현재 5대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45조원(정책성 대출 제외)이었다. 전체 대출총량제한 비율인 1.5%를 적용하면 약 10조원의 증가 여력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부여받은 한도는 4.3조원이었고 8월 현재까지 취급 실적은 5.8조원으로 이미 한도를 초과한 상태이다. 한도 증가비율이 3%로 상향되고 동일비율로 배분된다고 가정 시 연간 한도는 8.6조원으로 증가되면서 추가 대출 여력은 약 2.9조원으로 추산된다. 물론 정책성대출이나 집단대출을 어떤 범주로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 추가 여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정(?)을 엄밀히 준수한다고 가정 시 주요 시중은행들이 실제로 취급할 수 있는 신규 대출 여력은 그다지 커보이지 않는다. 상반기중 5대은행 가계대출은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채권(순)발행 또한 크지 않은 편이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금융 완화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은행권의 채권발행 순증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금융 접근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현재 국내 부동산금융조달은 거시적/미시적인 관점의 이중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DSR



Analyst 김성만 credinal@hanafn.com
RA 김기범 kbkim1@hanafn.com

적용 및 주택절대가격 등에 따른 대출총액규제 등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규제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조건이 성립되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시적인 총량대출규제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러하다)

금번 대책 발표 내용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1.5%에서 3%로 상향한다고 한다. 금액기준으로 볼 때 약 30조원의 가계대출 증가여력이 발생하는 것이다(상반기 중 가계신용 잔액 증가가 약 41조원을 기록함에 따라 실제로는 20조원 내외에서 배분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재원을 금융사별로 배분하기 위한 첫 실무회의가 19일 개최될 예정이다. 그리고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는 금융회사별 한도·정책대출·유보분 세 항목으로 나뉘며,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은 개별 금융회사 한도가 아닌 금융당국 '유보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다만, 유보분에 얼마가 담기는지는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20~30조원 안에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과 청년 주거지원, 각종 정책대출까지 소화한 뒤 남은 재원을 가지고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는 갈아타기 실수요가 충당될 예정이다.

결국 양적인 총량제한 자체가 풀리지 않는 한 주택구매자들의 대출접근성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거시적인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적인 총량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 여건, 대출수요자들의 기대심리 등을 감안해볼 때 지금과 같은 대출재원 배분방식은 대출에 대한 희소성을 부각시키면서 잠재수요자들의 조바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의 주택매매시장은 이른바 '매도자 우위'의 성격으로 형성되면서 가격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현행처럼 전체 가계대출 공급 자체를 죄는 '전면적 총량제한'도 좋지만 영국이나 호주처럼 특정 고위험 대출(고DTI, 고LTV, 이자상환유예대출 등)의 '비중(포트폴리오 캡)'만 한시적/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결국 대출이 '희소재'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2026년 8월 20일 | Global Asset Research

인도

신흥국 전략

인도, 녹록지 않은 유가·금리 여건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고유가와 글로벌 금리 상승 장기화 시 환율 및 증시 약세 압력 심화 전망

최근 인도 중앙은행(RBI)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며 루피화 약세 압력을 완화한 덕분에 달러-루피 환율은 비교적 제한적인 변동폭을 유지하고 있다. RBI는 지난 6월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3~5년 만기 신규 FCNR(B) 예금(비거주 내국인 대상 외화 정기예금)에 대한 FX스왑 창구를 재도입했으며, 이후 대규모 달러 자금이 유입되면서 8월 초 외환보유액은 전월 대비 330억달러 증가해 7,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선제적인 외화유동성 확보로 현재 RBI의 환율 방어 여력은 크게 개선된 상태다.

다만, 대외 여건은 비우호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 중 하나인 인도는 원유 수입의존도가 90%에 달하는 만큼, 유가 상승 시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달러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무역수지 악화 부담도 확대되면서 루피화 약세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인도의 원유 수입비용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브렌트유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럴당 70달러대까지 하락했으나,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90달러를 재차 넘어서며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도 루피화의 안정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 최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완화됐지만, 재정 우려와 AI 투자 확대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BOJ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와 재정 우려가 맞물리며 10년물 국채금리가 약 30년 래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글로벌 전반의 금리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인도 역시 예외는 아니나, 미국 금리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미·인 국채금리 스프레드는 큰 폭으로 축소돼 과거 저점권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인도 채권의 상대적 매력도를 낮춰 외국인 자금 유입을 제약하거나 이탈 압력을 높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환율에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글로벌 장기금리의 유의미한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라는 하우스뷰를 고려할 때, 이러한 여건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최근 달러-루피 환율의 안정은 대규모 외화 유입을 바탕으로 강화된 RBI의 방어력이 약세 압력을 완충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충분한 외환보유액과 RBI의 적극적인 개입 기조를 감안하면 루피화의 단기간 내 급격한 약세 가능성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고유가와 글로벌 금리 상승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절하 압력이 점진적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인도 증시 역시 당분간 유가와 글로벌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루피화 약세 압력이 심화될 경우 외국인 수급 측면의 부담도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관련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2026년 8월 20일 | 기업분석

BUY (신규)

목표주가(12M) 2,500원
현재주가(8.19) 2,025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471.17
52주 최고/최저(원)	3,090/1,654
시가총액(십억원)	653.6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322,747.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290.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6.6
외국인지분율(%)	12.67
주요주주 지분율(%)	
에스엠상선 외 2인	48.8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201.4	1,187.7
영업이익(십억원)	249.5	242.1
순이익(십억원)	173.2	147.6
EPS(원)	542	486
BPS(원)	7,456	7,917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747.2	1,277.0	1,310.9	1,321.3
영업이익	328.6	207.2	258.5	232.5
세전이익	173.6	185.0	219.6	202.9
순이익	162.1	180.2	215.4	198.9
EPS	507	559	667	616
증감율	136.92	10.26	19.32	(7.65)
PER	3.30	3.14	3.11	3.37
PBR	0.27	0.26	0.28	0.26
EV/EBITDA	5.04	5.38	5.10	4.85
ROE	8.93	8.63	9.51	8.05
BPS	6,289	6,684	7,351	7,968
DPS	0	0	0	0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대한해운 (005880)**Next Step을 기대하며****장기 계약 위주의 벌크/LNG 선사**

대한해운은 벌크/LNG 수송 위주의 해운사이며, 매출의 70% 이상이 장기운송계약(포스코/한국가스공사 등)에서 발생한다. 현재 자회사 포함 총 56척의 선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드라이벌크선 38척, LNG선 14척, 탱커선 3척이 포함된다. 스팟 시장에 노출된 선대는 건화물선 10척, 탱커(제품선) 3척이다. 대한해운의 2026년 상반기 매출액은 11% (YoY) 감소한 5,906억원, 영업이익은 42% 증가한 1,374억원(영업이익률 23.2%)을 기록했다. 2분기 말 부채비율은 64%로 하락했는데, 2025년 VLCC/벌크선을 매각한 대금을 부채 축소에 사용하면서 재무비율이 크게 개선되었다. 2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약 3,000억원을 보유 중이다.

향후로도 걱정 없는 실적+LNG선 기대감도

대한해운은 장기계약 위주이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이 높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2026년 매출액은 선대 감소 및 분양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벌크/탱커선 시황 호조로 3% (YoY) 증가한 1조 3,110억원, 영업이익은 25% 증가한 2,585억원(영업이익률 19.7%)으로 전망한다. 대한해운은 스팟 노출도가 제한적이거나 벌크선 운임 호조가 2025년 이후 지속되면서 장기계약 종료 시 계약 운임을 높여갈 수 있는 환경이고, 고객사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고수익성을 유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전쟁 이후 탱커 운임 호조에 따라 스팟 탱커 선대의 증익도 기대된다. LNG선에서도 추가 기회가 열려있다. 대한해운은 한국가스공사의 LNG선 전용선을 8척 보유하고 있고, 1996년부터 전용선 계약을 이어오는 등 장기간 협력해오고 있다. 최근 카타르로부터의 LNG 도입 차질과 미국에서의 LNG 추가 도입 계획(연간 330만톤)을 감안하면 LNG 전용선 추가 계약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는 판단이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2,5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대한해운은 80% 이상의 영업이익이 장기계약 선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대로 해운 운임 상승기에도 실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벌크선의 제한적인 공급 증가율과 재건 수요 증가, 재고 축적 수요 증가 등 운임 상승 요인을 감안하면 제한적인 용선/스팟 노출은 아쉽다. 그러나 대한해운의 현금성자산 규모(3,500억원)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장기계약 수주를 통한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장기계약 위주 해운사의 평균 P/B 인 0.83배에서 60% 할인한 0.33를 Target Valuation으로 설정하여 목표주가를 산정했다. 대한해운에 대해서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2,500원을 제시하면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2026년 08월 20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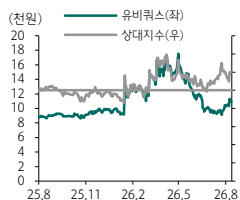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22,000원
현재주가(8.19) 10,73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24.46
52주 최고/최저(원)	17,550/8,640
시가총액(십억원)	157.3
시가총액비중(%)	0.03
발행주식수(천주)	14,665.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62.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0.7
외국인지분율(%)	6.28
주요주주 지분율(%)	
유비쿼스홀딩스 외 5인	43.26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03.8	116.4	127.7	145.2
영업이익	12.4	23.1	27.8	29.3
세전이익	17.9	28.9	38.8	35.0
순이익	21.3	24.1	31.2	27.3
EPS	1,392	1,618	2,131	1,863
증감율	(17.39)	16.24	31.71	(12.58)
PER	5.75	6.00	5.12	5.86
PBR	0.68	0.73	0.73	0.67
EV/EBITDA	(0.92)	(0.49)	(0.57)	(1.02)
ROE	12.45	12.92	15.03	11.87
BPS	11,841	13,350	14,996	16,390
DPS	170	470	470	47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유비쿼스 (264450)**사업확장을 하려면 지금이 최적의 시점입니다****유비쿼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2,000원 유지**

유비쿼스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2,000원을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기확보한 원재료 물량 덕분에 반도체 쇼티지에도 불구하고 2분기 영업이익 90억원으로 장비사 중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고, 2) 재고 물량 감안했을 때 낙관적으로 보면 3분기도 원가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3) 낮은 부채비율과 보유 현금/금융자산 고려하면 통신장비 주도업체 경영권 인수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어서 주가 부양과 신규 사업 진출이 모두 기대되기 때문이다.

통신장비 업계 부진 지속되는 가운데 유비쿼스는 양호한 2분기 실적 기록

유비쿼스는 2분기 매출액 356억원(YoY +12%, QoQ +55%), 영업이익 90억원(YoY +62%, QoQ +145%)을 기록했다. 국내 통신장비주 중에선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상대적으로 수요가 안정적인 유선장비 위주 포트폴리오 및 재고 관리 덕분이다. 최근 반도체 쇼티지가 통신장비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칩과 광모듈 수입단가가 연말 대비 60~120% 폭등한 상황이다. 유비쿼스는 단가 인상 전에 기확보한 원재료 물량 덕분에 1~2분기 원가 상승을 피할 수 있었고, 회사 재고자산 회전율과 매입물량을 감안시 3분기 이익률도 낙관적으로 볼 여지는 있다. 다만 글로벌 칩 단가 상승 압력이 지속 중인데 비해 유비쿼스의 통신사 대상 판가 협상력이 한계가 있는 점은 사실인만큼 현재 이익 기조가 유지되려면 통신장비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 다행히 피지컬 AI 고속도로 정책으로 인한 유선장비 수요 증가 및 트래픽 증가로 인한 교체 수요 덕분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비쿼스 실적 성장성은 건조한 편이다.

장비업계 실적과 주가 부진한 지금이 M&A 하기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유비쿼스 주가 상승률은 부진하다. 주가 부양을 위해선 주주환원정책 강화 혹은 외연확장이 필요하지만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8%에 달한 상황에서 현재 유비쿼스 기대배당수익률 4.3%가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당장 배당성향을 대폭 상향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결국 장비주 투자가 관점에선 외연확장만큼 주가를 확실히 부양시킬 방법은 없다. 그렇게 보면 지금이 유비쿼스 입장에서 M&A 추진에 최적의 시점이다. 타 장비업체들은 부진한 실적 탓에 M&A 추진시 인수대가를 높게 부를 명분이 약할뿐더러, 외부 수급 요인으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였으니 공개매수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유비쿼스는 부채비율 16%로 주요 통신장비업계 중에선 가장 낮는데, 업계 평균 수준으로 부채비율을 상향하면 1,500~2,000억대 차입금 신규 조달이 가능하다. 거기에 유비쿼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금융자산이 합계 1,700억원 수준이므로 운전자본 제외할 경우 최대 3,000억원대 현금을 동원할 수 있다. 장비주 주가 하락한 현시점에서 선도업체의 경영권 인수도 충분히 가능한만큼 사업 확장과 주가 상승의 일거양득의 기회는 충분하다.

2026년 08월 20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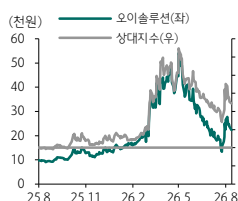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60,000원
현재주가(8.19) 22,35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24.46
52주 최고/최저(원)	54,000/9,080
시가총액(십억원)	276.6
시가총액비중(%)	0.06
발행주식수(천주)	12,377.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57.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0.4
외국인지분율(%)	4.04
주요주주 지분율(%)	
박찬 외 4인	22.3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76.7	128.4
영업이익(십억원)	4.1	22.0
순이익(십억원)	4.5	16.2
EPS(원)	366	1,309
BPS(원)	6,636	8,005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2.0	57.4	77.4	126.7
영업이익	(30.4)	(16.0)	2.1	21.2
세전이익	(32.0)	(27.2)	2.2	20.0
순이익	(33.1)	(27.0)	1.5	15.6
EPS	(3,118)	(2,504)	125	1,260
증감율	적지	적지	흑전	908.00
PER	(3.35)	(5.23)	178.40	17.70
PBR	1.34	2.11	3.29	2.77
EV/EBITDA	(5.55)	(16.10)	38.30	10.70
ROE	(35.71)	(39.08)	2.19	18.69
BPS	7,758	6,216	6,780	8,039
DPS	0	0	0	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오이솔루션 (138080)**실적 턴어라운드가 임박했습니다****오이솔루션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60,000원 유지**

오이솔루션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60,000원을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일회성 재고 자산 폐기손실 제외하면 사실상 2분기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2) 핵심 원재료인 LD칩의 내재화 적용범위가 내수 제품 전반으로 확대 중이어서 장기 이익률 향상이 기대되며, 3) 과기부 AI RAN 실증사업 덕분에 오이솔루션 내수 매출 회복시점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회성 재고자산 폐기손실 제외하면 2분기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

오이솔루션은 2분기 매출액 197억원(YoY + 23%, QoQ +9%), 영업이익 -9억원(YoY 적축, QoQ 적지)을 기록했다. 재고자산 폐기손실 15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19개 분기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이룬 셈이다. 현재 회사 수주잔고가 전반기 200억원 대비 2배 증가한 400억원인 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이 예년을 크게 웃도는 10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제품 진부화로 인한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수요 증가 중인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하반기 이후 폐기손실 환입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한편 매출총이익률이 20%를 기록하며 적자폭 축소의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도 있겠지만, 원자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LD칩 내재화를 증가가 원가 개선의 주동력으로 파악된다. 상반기 원자재 매입액 중 LD칩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근 10년내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일본향에 이어 내수 부문에도 내재화가 진행되며 외부 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핵심 부품 내재화율이 향상중인 만큼 향후 AI RAN을 통한 내수 매출 급증시 큰 폭의 이익률 향상이 기대된다.

AI RAN 정책이 오이솔루션 내수 매출 회복의 바로미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술한 요인들을 볼 때 하반기 이후 흑자전환 가능성은 확실히 증가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대규모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다리며 보수적으로 접근 중인데, 늦어도 내년말에는 대규모 수주가 예상된다. 과기부 주관 AI-RAN 선도사업을 감안하면 그렇다. 과기부에선 2개 연도로 구분하여 선도사업을 진행한다. 국가 단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선도 사업 종료 후 즉각적인 AI-RAN 상용화를 통한 5G-SA/6G 망구축에 돌입할텐데, 회사는 국내 무선망 광트랜시버 M/S 최대 업체이니 AI-RAN용 트랜시버 수요에 가장 크게 노출된다. 참고로 무선장비주 특성상 재료 노출에 선행하여 주가가 급등하는데, 최근 오이솔루션 주가 반등 양상을 보면 이미 시장에서선 오이솔루션 수혜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이다. 여타 국내 광트랜시버 업체 주가 반등률이 부진한 동안 오이솔루션만 저점대비 2배 반등했다. 그런데 오이솔루션은 타 업체 대비 데이터센터용 광통신업체보다 무선통신장비주로 인식된 점, 수출보다 내수 중심이어서 중국 광통신업체 퇴출 수혜주로 분류되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즉, 시장에서선 이번 과기부 실증사업을 오이솔루션 내수 매출 회복 시점의 힌트로 받아들인 셈이다. 과거 오이솔루션 실적 턴어라운드를 수개월 선행하여 주가가 저점대비 5배 급등한 점을 복기하면 이번 시장의 반응을 강력한 매수 신호로 인식해야 한단 판단이다.

2026년 08월 20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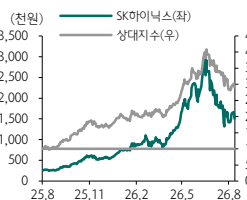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3,600,000원
현재주가(8.19) 1,500,0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471.17
52주 최고/최저(원)	2,919,000/245,000
시가총액(십억원)	1,095,738.5
시가총액비중(%)	20.54
발행주식수(천주)	730,492.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5,902.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2,185.2
외국인지분율(%)	51.16
주요주주 지분율(%)	
에스케이스퀘어 외 9인	20.00
국민연금공단	7.32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45,803.9	500,077.3
영업이익(십억원)	266,647.5	391,820.3
순이익(십억원)	253,248.8	318,877.5
EPS(원)	349,566	436,187
BPS(원)	518,236	944,539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66,193.0	97,146.7	352,234.2	507,904.6
영업이익	23,467.3	47,206.3	271,292.0	403,417.3
세전이익	23,885.4	50,465.6	351,329.9	434,636.7
순이익	19,788.7	42,919.3	272,226.8	338,884.5
EPS	27,182	58,955	376,719	463,912
증감율	흑전	116.89	538.99	23.15
PER	6.40	11.04	3.98	3.23
PBR	1.66	3.88	2.77	1.50
EV/EBITDA	3.87	7.66	3.08	1.38
ROE	31.06	44.15	105.53	60.11
BPS	104,567	167,604	541,601	1,002,531
DPS	2,204	3,000	3,000	3,000



Analyst 김록호 rokohkim@hanafn.com
RA 박규연 gyujeonpark@hanafn.com

SK하이닉스 (000660)**40조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공시****자사주 취득 및 소각 세부 사항**

SK하이닉스는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공시했다. 취득 예상 기간은 8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이고, 예정 금액은 40조원(8월 18일 종가 기준 약 2,400만주)이다. 8월 19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대비 3.6%에 해당한다. 자기주식 전량 취득은 예정일보다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며, 취득이 완료된 후에는 1~2주 내에 전량 소각하는 신속한 주주환원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전량 소각 목적이기 때문에 직원 상여금 관련 주식 확보와는 무관하다. 기존 고정 배당과 특별배당 등을 포함한 배당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향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가 환원 규모와 방식이 공유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주주환원 재원 중에 자기주식 취득의 비중을 크게 가져갈 방침이다.

2025~2027년 누적 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

기존 정책인 2025~2027년 3개년간 누적 FCF의 5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에서 50% '이상'으로 정책을 상향했다. 올해는 물론 2027년 주주환원 규모가 기존대비 강화되기 때문에 해당 발표들은 주주가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FCF는 영업현금 흐름에서 유형자산취득을 차감한 개념으로 M&A 관련 현금 지출은 FCF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향후 투자 및 재무 건전성을 위해 현금 100조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최근에 투자 규모가 증대되고 있어 추가적인 현금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략적으로 2년 분량의 Capex 금액을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기주식 취득만 40조원이면 긍정적. 추가 주주 환원도 대기

SK하이닉스의 40조원 자사주 취득은 주주 입장에서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한다. 하나증권은 2026년 연내 40~60조원의 주주환원 규모 및 자사주 매입과 배당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추정했다. 즉, 20~30조원 규모의 자사주매입을 예상했는데, 이를 상회하는 규모가 발표되었다. 아울러 추가적인 환원 정책도 공유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ADR 관련 언급도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ADR 교환 비중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에 의사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비중이 워낙에 낮은 편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교환 비중을 확대해 주주가치에 기여하겠다는 방향성은 명확하다.

2026년 08월 20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Not Rated

현재주가(8.19)

22,20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24.46
52주 최고/최저(원)	33,800/14,720
시가총액(십억원)	242.5
시가총액비중(%)	0.05
발행주식수(천주)	10,925.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30.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2
외국인지분율(%)	1.61
주요주주 지분율(%)	
이종민 외 2인	28.02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82	202
영업이익(십억원)	5	9
순이익(십억원)	6	9
EPS(원)	549	842
BPS(원)	5,611	6,453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70	74	94	73
영업이익	11	4	(17)	(28)
세전이익	7	3	(16)	(27)
순이익	5	4	(14)	(27)
EPS	672	439	(1,308)	(2,443)
증감율	114.0	(34.7)	적전	적지
PER	0.0	134.9	(26.3)	(11.7)
PBR	0.0	6.5	4.4	5.6
EV/EBITDA	0.0	104.9	0.0	0.0
ROE	156.7	3.7	(16.6)	(48.0)
BPS	419	9,158	7,825	5,085
DPS	0	0	0	0



Analyst 권태우 tkwon@hanafn.com

RA 김진우 jinwookim1336@hanafn.com

에이직랜드 (445090)**2026년 흑자, 2027년 임계점, 2028년 레버리지****2Q26 Review: 흑자 전환, 일회성을 제외해도 남는 이익**

2Q26 매출액 597억원(+306.6% YoY, +10.7% QoQ), 영업이익 79억원으로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1,137억원(+273.4% YoY)이다. 2Q 매출은 양산 165억원과 개발 432억원으로 구성된다. 이익에는 CXL 개발과제 종료에 따른 일회성 정산 이익 약 5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동사는 개발과제 견적 시 예상 손실을 보수적으로 원가에 반영하는데, 해당 과제가 계획보다 원활하게 마무리되며 기존 원가가 환입된 결과다. 다만 이를 제외해도 영업이익은 30억원 수준으로, 일회성에 기대지 않고도 흑자 구조에 들어섰다는 점이 확인된다. 지난해 손실이 집중됐던 엡지 AI 관련 프로젝트가 대부분 종료되며 원가 부담이 해소된 영향이다.

양산 매출 가동, 하이닉스 계약금액은 410억원으로 증액

양산 부문이 실제 매출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2Q 양산 매출 가운데 대만법인 물량이 102억원을 차지했다. 2024년 연구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대만법인은 설계를 고객사가 맡고 양산만 TSMC로 넘겨 인식하는 구조로, 2년 만에 최대 양산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SD카드 컨트롤러는 연간 265억원 규모 계약으로, 2Q 40억원에 이어 하반기 200억원가량이 인식될 예정이다. 이에 하반기 양산 매출은 300억원 수준으로 상반기 대비 약 40% 늘어난다. 개발 부문에서는 8월 19일 정정공시를 통해 SK하이닉스 eSSD 컨트롤러 계약금액이 319억원에서 410억원으로 증액되었다. 2025년 매출액의 56.2%에 해당하는 규모로, 최초 공시 두 달 만에 물량이 확대된 셈이다. SK하이닉스향 개발 매출은 상반기 260억원에 이어 하반기 400억원 규모가 반영될 전망이며, 하반기 개발 매출 전체는 5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7년 하반기, 손익 구조가 바뀌는 임계점

3~4분기 매출액은 각각 400억원 내외로 2Q 대비 감소하나, 분기 흑자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연간으로는 매출액 1,900억원, 영업이익 80억원 내외가 예상된다. 주목할 부분은 이익의 원천이 일회성 개발 정산에서 양산으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현 구조에서 분기 BEP 매출액은 380~400억원 수준이며, 분기 양산 매출이 300억원을 넘어 고정 판관비를 커버하는 시점부터 개발 부문 이익이 대부분 영업이익으로 연결된다. 도달 시점은 2027년 하반기, 안정적 상회는 2028년으로 전망된다. TSMC VCA 8개사 가운데 GUC-Alchip은 하이퍼 스케일러형 선단공정 물량으로 캐파가 채워져 있어, 중견 팹리스와 국내 IDM 프로젝트가 동사로 유입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손익 구조가 바뀌는 임계점에 다가서는 국면에서 eSSD 양산까지 더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6년 8월 20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8월 19일

SK이터닉스(475150)

BUY | TP 66,000원 | CP 57,800원

유틸리티

공급 부족에도 REC 가격은 안정적

2026년 상반기 기준 REC 발급량 전년대비 7.4% 증가

한국에너지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누적 기준 RPS 설비 발전량 32.6TWh, REC 발급량 4,571만REC를 기록했다. 발전량은 전년대비 4.5% 증가, REC 발급량은 7.4% 증가한 가운데 평균 REC 가중치는 1.40로 2025년 대비 0.04 상승했다. 아직 상반기 실적만 놓고 비교한 수치지만 REC 공급 증가가 2025년 연간 두 자리 수 성장에서 한 자리로 감소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 REC 발급량은 각각 40.1만, 5.4만 REC로 전년대비 각각 94.5%, 91.0% 줄어들었다. 2025년 10월 일부 REC 가중치가 조정되었고 국내산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사용함에 따라 가중치가 유지 또는 상향되는 일부 사례들을 제외하면 2026년부터 바이오매스 REC 공급이 감소하는 구조였다. 특히 발전자회사 바이오매스 혼소 설비는 2026년부터 가중치가 0으로 조정되면서 공급이 빠르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REC 공급 부족이지만 현물 가격은 7만원 초반 유지

2026년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잠정치를 보면 발전량 기준 6,933만MWh로 전년대비 6.3% 증가, 공급인증서 기준 9,429만REC로 7.9% 증가한다. 2026년의 REC 수급 밸런스는 공급부족이 예상된다. 2027년 RPS 의무비율 추가 상승으로 REC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예정이었으나 현물 REC 가격은 7만원대 초반의 제한된 변동성을 보여주는 중이다. 2027년부터 RPS 제도 일몰 그리고 REC 현물시장의 점진적 폐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물시장은 당분간 존속하지만 정책 불확실성으로 REC 가격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제도 변화로 가격경쟁 심화 시 PPA 수요 증가 가능

2027년부터 기존 RPS 제도가 종료되고 정부 계약시장으로 전환되어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해서 REC 발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기존 계약은 유효하고 REC 현물 시장 또한 3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REC 가격 추이에 대한 관찰은 필요하다. 앞으로 재생에너지는 발전원별 용량 계약시장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고정가격이 체결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태양광 계약단가 단계적 인하를 언급했고 최근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상한가격이 147.686원/kWh으로 전년대비 5% 가량 낮아졌다. 경쟁입찰에 지역별 SMP까지 정부 정책이 재생에너지 단가 인하를 목표로 추진될수록 신규 발전사업자의 선호도는 계약시장보다 PPA 시장에 집중될 개연성이 크다.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박시현 boxyhyun@hanafn.com

2026년 8월 19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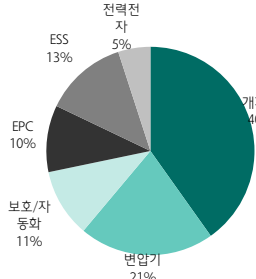
중국

TP(컨센서스) 222.33 CNY
CP(8.18) 182.44 CNY

Key Data

국가	중국
상장거래소	심천 거래소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전기 장비
홈페이지	www.sieyuan.com
시가총액(심역CNY)	141.6
시가총액(조원)	29.6
52주최고/최저(CNY)	239.12/82.43
주요주주 지분율(%)	
HONG KONG SECURITIES CLEARING	19.86
Dong Zengping	4.20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24.5 (13.9) 118.1
상대	15.8 (12.6) 105.0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CNY)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15,458	21,539	28,246	36,909
영업이익	2,378	3,666	4,934	6,750
순이익	2,049	3,150	4,141	5,657
EPS(CNY)	2.6	4.0	5.3	7.3
EPS(YoY, %)	30.7	53.1	31.3	36.6
ROE(%)	18.0	22.6	23.2	25.3
PER(배)	27.5	38.3	34.1	25.0
PBR(배)	4.6	7.8	7.4	5.9
배당률(%)	0.7	0.5	0.5	0.7

자료: Bloomberg, 아나중권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사원전기(002028.CH)

2Q26 Re: 단기 실적보다 견조한 수주에 주목

환손실 영향으로 순이익 잠정치 소폭 하회

사원전기 2Q26 매출은 62억위안(YoY +18%)으로 잠정실적에 부합했고, 순이익은 9억위안(YoY +8%)으로 잠정실적을 -2.5% 하회했다. 순이익이 부진했던 이유는 위안화 절상 영향으로 1H26 8,506만위안의 환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Sieyuan Toshiba Transformer 지분율이 기존 90%에서 70%로 낮아진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2Q26 GPM은 31.6%로 YoY 1.0%p 하락했는데 이는 마진율이 낮은 ESS(10.5%) 사업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었고 수익성이 높은 해외 매출 비중이 축소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사업부문별로는 1H26 개폐기/변압기 매출이 각각 YoY +23%/+13% 증가했으며, ESS/EPC(설비통합) 매출은 각각 YoY +231%/+38% 고성장했다. ESS 사업부 GPM은 10.5%로 개폐기(39%)와 변압기(36%)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YoY +4.2%p 개선되며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다.

해외 매출 비중 축소는 일시적, 신규 수주는 견조

1H26 해외 매출은 32억위안으로 YoY +11% 증가했다. 전년 동기 높은 베이스 부담(YoY +89%)으로 성장률은 둔화됐으며, 해외 매출 비중도 1H25 34%에서 1H26 29%로 축소되었다. 해외 사업 GPM은 33.4%로 중국 내수(29.2%)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EPC 사업 비중 확대 영향으로 YoY -2.3%p 하락했다. 2Q26 해외 매출 비중 축소는 프로젝트별 제품 인도 일정과 미국-이란 분쟁에 따른 일부 중동 지역 주문의 납품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현재 수주 흐름은 견조하다. 1H26 계약부채는 38억위안으로 YoY +49% 증가했으며, 신규 수주 역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풍부한 국내외 수주잔고가 향후 실적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특히 2H26에는 해외 수주의 인도가 가속화되면서 해외 매출 비중 회복과 함께 전사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CAPA 확대와 해외 수주가 이끌 중장기 성장

사원전기는 견조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능력 확대도 추진 중이다. 2026년 6월 각각 6억위안과 4.8억위안을 투자해 개폐기와 변압기 생산능력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며, 7월에는 최소 4억위안 규모의 증자를 통해 슈퍼커패시터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고압 전력기기의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능력 확대와 해외 고마진 수주 인도 가속화가 향후 실적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전망이다. 사원전기 주가는 최근 한 달간 약 24% 상승해 현재 12MF P/E 34배 수준에서 거래 중이며, 이는 역사적 PER 밴드 중상단 수준이다. 단기 주가 상승을 견인할 추가 촉매는 제한적이나, 국내외 전력망 투자 확대와 해외 수주 성장에 기반한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

산업 Issue

2026년 8월 19일 | 글로벌 리서치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온사이트 도입의 근거는 납기에서 수용성으로 확대

네비우스x마이크로소프트의 Vineland Phase 2 승인 완료

2025년 9월 네비우스(NBIS)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뉴저지주 Vineland에 위치한 신규 데이터 센터에서 전용 GPU를 제공하는 AI 인프라 계약을 체결했다. 2025년 말부터 서비스 공급을 시작해 2027년까지 최종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26년 5월 네비우스는 블룸에너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1차 프로젝트는 328MW 규모로 올해 안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최근 연료전지가 왕복엔진을 대체하며 프로젝트 가시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기오염 및 소음, 물 사용 관련 주민 반발로 인해 Vineland 시는 부지 배치 계획 수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진행했다. 8월 17일 열린 공청회에서 왕복엔진과 가스터빈을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로 전환하는 부지 계획은 8:1로 승인되었다.

펜실베이니아도 계통 신규 규제를 공개

데이터센터 규제는 최근 주, 지방 차원과 연방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다. 기본적으로 부지 선정, 인허가, 건설, 요금 등의 권한은 주 및 지방정부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규모 전력 사용자(데이터센터)의 송전 설비 연결 사한에 대해서는 연방(FERC)에서 담당한다. 현재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통적인 규제 방향은 계통 신규 연결 자체를 막거나(뉴욕, 미시간), 지역 승인이나 환경 심사 등으로 통해 추가적인 절차를 부담하는 규제(유타)를 신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8월 18일, 펜실베이니아주도 데이터센터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새로 공개했다. 새로운 전력 생산과 송전, 배전에 대한 모든 비용을 가정이 아닌 데이터센터 개발사에서 지불해야 하며 물 절약에 대한 요건을 추가했다.

온사이트 도입 논리는 납기에서 수용성으로 확대되는 중

네비우스는 2026년 5월 파트너십 계약서에서 블룸에너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빠른 전력 확보와 사실상 무공해에 가까운 기술, AI 워크로드의 극한 성능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했다.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는 연소 없이 전기를 생성해 물 사용량이 최소화된다. 또한 연료전지는 일반적으로 연소 기반 발전 방식 대비 인허가 부담이 가벼워 부지 선정부터 가동까지의 일정을 단축시키므로 납기의 기준에서도 선순환이 가능하다. 여전한 주민 반발이 있지만 터빈과 왕복엔진 대비 상대적 우위로 결국 승인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한다. 2025년 계통 연계 지연이 부각되며 ‘납기’의 관점에서 온사이트를 주목했다면 2026년에는 비용 전가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공해가 적어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센터 발전원으로서 온사이트 도입의 근거가 늘어나고 있다.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8/18	274,500	247,500	-9.84%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전기 (009150.KS)	8/18	1,558,000	1,387,000	-10.98%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삼성물산 (028260.KS)	8/18	369,000	347,000	-5.96%	- 원전·SMR·태양광·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신사업 확대와 2027년 배당 증가 전망 2026~2028년 계열사 배당수익의 60~70%를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
기아 (000270.KS)	8/18	141,700	133,000	-6.14%	- 하반기 미국 HEV 생산 확대와 신차 투입에 따른 판매 믹스 개선 기대 - 원재료 가격 안정과 우호적 환율, HEV 중심의 고수익 차종 판매 확대를 통한 실적 기대
삼성SDI (006400.KS)	8/18	516,000	487,000	-5.62%	- EV 배터리 합작사 리스크가 해소되고 ESS 생산기지로의 전환 여력 확대 - 북미 ESS 수요 증가에 대응해 2027년까지 약 30GWh 수준의 ESS CAPA 확보 예상
LG (003550.KS)	8/18	120,000	110,200	-8.17%	- 주요 전자계열사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며 지주사 NAV와 이익 체력 개선 기대 - 엔비디아와의 AI·로봇·데이터센터 협력 확대 가능성이 중장기 지주사 할인을 축소 요인
S-Oil (010950.KS)	8/18	147,600	151,600	2.71%	- 정제마진 강세와 윤활기유 스프레드 급등으로 3Q26 영업이익 1.08조원 예상 - 하반기 모멘텀 1) 윤활기유 추가 이익 확대 2) OSP 마이너스 재확인 3) 유가 안정
농심 (004370.KS)	8/18	437,500	432,500	-1.14%	2Q26 Review 매출액 9,561억원(YoY +10.2%), 영업이익 593억원(YoY +47.6%) 기록 - 북미 수익성 개선 및 글로벌 라면 업체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로보티즈 (108490.KQ)	8/18	280,000	267,000	-4.64%	- 휴머노이드 시장 확대에 따라 핵심 부품인 DYNAMIXEL 액추에이터 수요가 급증 - 액추에이터 CAPA를 대폭 확대하며 글로벌 피지컬 AI 시장 선점 가능성 부각
제닉 (123330.KQ)	8/18	27,300	28,100	2.93%	- 글로벌 하이드로겔 마스크 수요 급증과 미국 오프라인·유럽 시장 확대로 고성장 지속 - PDRN 하이드로겔 수출 안정화와 생산라인 증설로 수익성 개선 본격화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4.73%	+2.62%p	+70.78%	+15.06%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NAVER (035420.KS)	8/18	228,000	208,000	-8.77%	- AI 브리핑·AI 탭 고도화와 커머스·Npay Connect 확대로 B2C 경쟁력 강화 기대 - 엔비디아와 글로벌 AI 팩토리·네오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며 2027년부터 B2B 매출 본격화
키움증권 (039490.KS)	8/18	300,500	265,500	-11.65%	- 브로커리지와 ETF LP·PI 트레이딩 호조로 2Q26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33% 상회 - 국내 거래대금 둔화에도 높은 해외주식 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실적 유지 가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8/10	1,097,000	1,177,000	7.29%	- K9 자주포·천무 중심의 유럽·중동 수출 확대로 지상방산 수주잔고 약 39.7조원까지 증가 -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과 수주 기대감 재차 확대될 전망
삼성SDI (006400.KS)	8/10	459,000	487,000	6.10%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승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팬오션 (028670.KS)	8/10	6,040	6,010	-0.50%	- BDI 강세와 탱커 운임 상승으로 벌크·탱커 부문 이익이 확대되며 호실적 기대 - SK해운 인수 VLCC의 실적 기여와 증장기 운임 강세가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삼성전자 (005930.KS)	8/3	262,500	247,500	-5.71%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387,000	21.45%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아모레퍼시픽 (090430.KS)	8/3	130,000	133,100	2.38%	- 북미·유럽과 코스알엑스의 고성장으로 글로벌 실적 개선세 본격화 - 지역·채널 다각화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멀티브랜드 기업으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종산 (103140.KS)	8/3	71,200	79,200	11.24%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SK이노베이션 (096770.KS)	7/20	121,400	128,900	6.18%	- 윤활기유 호조와 SK온 적자 축소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 전망 - 정제마진 강세와 그룹3 윤활기유 공급 부족으로 2026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대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66,400	-9.76%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304,000	16.53%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8.72%	+3.25%p	+38.50%	-17.25%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시테크 TOP10 (485540)	2026.07.16	16,205	14,970	-7.6%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	2026.02.24	15,160	11,765	-22.4%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36,900	24.8%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PLUS 글로벌 HBM반도체 (442580)	2026.07.16	106,895	96,440	-9.8%	- HBM(고대역폭메모리) 밸류체인인 핵심 제조사와 장비·부품·소재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HBM 집중 테마 ETF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합산 비중이 75% 수준으로 핵심 제조사에 집중된 구조이며, 그 외 글로벌 장비, 부품 관련 기업까지 편입해 HBM 성장 모멘텀 전반의 수혜 기대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9,045	-9.4%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교سه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O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자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TIME 글로벌우주테크 &방산액티브 (478150)	2026.07.16	21,300	21,135	-0.8%	- 우주 산업의 성장과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액티브 ETF로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 종목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 - SpaceX 상장 이후 본격화되는 우주 산업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추세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TIGER 글로벌 AI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7,725	-3.8%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AI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KODEX 미국 AI전력핵심인프라 (487230)	2026.07.16	23,200	20,265	-12.7%	- AI 성장 과정 속에서 전력 인프라라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 관련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 - 주요 빅테크의 파트너로 선정되고 있는 미국 전력 생산·송배전·데이터센터 핵심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주1: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주2: 전일종가는 한국 시간으로 전영업일 15시 30분 기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3.73	89.00	6.3%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인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KBWB (미국 은행)	2026.07.16	98.37	98.89	0.5%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C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1.89	97.44	6.0%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86.69	14.4%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569.77	68.0%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DRAM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026.06.22	80.72	55.10	-31.7%	• 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 • 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장 모멘텀 수혜 기대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77.67	183.76	3.4%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2.00	160.11	5.3%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주2: 전일종가는 한국 시간으로 전영업일 06시(썸머타임 적용시 05시)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8.16	8.17	8.18	8.19	8.20	8.21	8.22
	- 일본 2분기 GDP (1.1%, 이전치 1.9%) - 일본 6월 광공업생산 (4.9%, 이전치 4.2%) - 중국 7월 소매판매 (0.6%, 이전치 1.0%) - 중국 7월 광공업생산 (4.5%, 이전치 5.3%) - 중국 7월 고정자산 (-6.7%, 이전치 -5.7%) - 미국 8월 NAHB 지수 (35, 이전치 34)	- 유로존 8월 ZEW 서베이 (30, 이전치 26.3) - 미국 7월 주택착공건수 (-5.9%, 이전치 19.0%) - 미국 7월 건축허가 (0.6%, 이전치 -2.6%) - 미국 7월 설비가동률 (76.3%, 이전치 76.1%) - 미국 7월 광공업생산 (0.3%, 이전치 0.1%)	- 일본 6월 핵심기계수주 (9.7%, 이전치 -12.4%) - 유로존 7월 CPI (E 2.9%, 이전치 2.9%)	중국 8월 금리 결정 (E 3.0%, 이전치 3.0%)	- 한국 7월 PPI (E --, 이전치 8.6%) - 일본 7월 CPI (E 1.9%, 이전치 1.6%) - 일본 8월 제조업PMI (E --, 이전치 54.5) - 일본 8월 서비스업PMI (E --, 이전치 51.2) - 유로존 8월 제조업PMI (E 51.8, 이전치 51.9) - 유로존 8월 서비스업PMI (E 51.5, 이전치 51.7) - 미국 8월 제조업PMI (E 53.9, 이전치 53.9) - 미국 8월 서비스업PMI (E 54.0, 이전치 54.6)	
8.23	8.24	8.25	8.26	8.27	8.28	8.29
		- 한국 8월 소비자심리지수 (E --, 이전치 106.8) - 미국 6월 FHFA 주택가격 지수 (E --, 이전치 0.3%) - 미국 7월 신규주택판매 (E --, 이전치 1.6%) -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E --, 이전치 90.8)	- 미국 7월 개인소득 (E 0.2%, 이전치 0.2%) - 미국 7월 개인소비지수 (E 0.2%, 이전치 0.3%) - 미국 7월 PCE (E 3.6%, 이전치 3.7%) - 미국 7월 근원 PCE (E 3.3%, 이전치 3.3%) - 미국 7월 내구재 주문 (E 0.6%, 이전치 0.5%)	- 한국 8월 금리 결정 (E 3.0%, 이전치 2.75%) - 중국 7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15.1%) - 미국 7월 도매 재고 (E --, 이전치 0.2%) - 유로존 9월 ZEW 서베이 (E --, 이전치 6.3)	- 일본 7월 실업률 (E --, 이전치 2.5%) - 미국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E --, 이전치 --)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